White Ribbon Bulletin
For God
For Home
For Every Land

보도자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일시: 2019. 11. 22(금) 조간
총 4 쪽 (붙임 포함)

담당자 연락처 : 02-754-1707
www.kwctu.org / kwctu@korea.com

2019년 제 16 회 태아알코올증후군 및 니코틴중독 예방 세미나
"임신 전 음주가 태아발달 및 산모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자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심혈관질환과 과장 김원호

- 일시 :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회관 **2층**
- 내용 : 임신 전 음주가 태아발달 및 산모건강에 미치는 영향
- 의의 : 임신 동안 음주에만 대부분 연구가 집중이 되어 있었으나 임신전 음주가 태아발달이나 산모건강에 미치는 직접적인 폐해 최초의 연구이다. 거기에 실제 임신모델에서 확인을 하고 발생원인을 밝히고 이를 직접 생체내에서 중재/억제함으로 확인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김원호 박사는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에서 **10** 여 년 동안 세미나 강연을 하면서 임신 중, 임신 전 가임 여성 음주(특히 여대생, 직장여성)의 위험성을 주제로 국가 연구사업으로 지정하고 발표해 왔다.
- 약도

■ **임신 전 음주가 태아발달 및 산모건강에 미치는 영향**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심혈관질환과 과장 김원호

1. 연구배경 : 임신 중 산모가 심한 음주를 하게 되면 태아 발달 및 건강에 미치는 폐해는 너무 잘 알려져 있다. 심지어 태아 발달뿐만 아니라 산모의 건강도 크게 해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 대부분 나라들의 경우, 산모가 임신을 하게 되면 거의 모든 산모들이 술 마시는 것을 멈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에도 임신 중 음주율이 3% 이내로 낮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3% 이내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각국들은 임신 중 음주가 태아발달 및 산모 건강에 미치는 폐해에 대한 대국민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음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저소득국가(middle-low income country) 들에서는 여전히 임신 중 음주율이 높은 실정으로 세계 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임신 중 음주의 폐해와 위험성을 알리는데 필요한 과학적 근거 생산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음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국에 보급하고 있다.

임신 중 음주가 태아 기형 발생, 발달 이상, 정신질환, 태아알코올증후군 등 발생에 미치는 원인 및 기전 등은 매우 잘 알려져 있어 이 부분은 연구보다는 산모 교육 및 음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보건정책들을 각국 실정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2. 연구 필요성 : 지금까지 산모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임신 중 음주에 집중이 된 반면 임신 전의 음주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고 심지어 태아와 산모건강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었다. 실제, 임신 전 음주가 태아 발달 및 산모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된바가 없고 몇몇 연구에서는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보건 빅데이타를 분석하며 얻은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음주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우리나라 여성에서의 유방암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여러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겠지만 여성 음주율 증가와 우리나라 임신에서의 난임과 불임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단순 스트레스 요인만으로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0.97명으로 급격히 감소를 하였다. 이는 미래 우리나라의 생산서 인구 감소와 함께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교육수준향상 및 사회생활

진입 증가 등으로 인한 음주율이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고 실정이다.

최근에는, 여고생의 음주비율이 남학생 음주율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고위험 음주율은 오히려 여학생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이 된 이후 여대생의 음주 경험률이 87%에 이르고 직장여성들의 음주 경험률도 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결혼 평균연령도 31세를 넘어섰고 임신고위험군인 35세 이상의 나이에 결혼 또는 임신 출산을 하는 비율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결혼 또는 임신 전에 오랜 시간동안 음주에 노출이 된 경우 임신능력 및 임신 후 태아건강 및 산모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들을 생산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내용 :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실제 전임상 실험동물모델을 이용하여 임신 전 2주 동안 높은 농도가 아닌 적정양에 해당하는 5% 알코올이 든 식이를 섭취하게 한 후 임신을 유도한 결과, 임신율이 음주를 한 군에서 약 15%가 낮은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태아 상태에서의 눈 발달이 정상군에 비해 늦었고 임신 된 태아 수도 평균 1마리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후 기형아 출산율이 7%로 나타났고 거대아 (Macrosomia)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현상들은 알코올 대사에 의해 생성되는 활성산소 증가와 일치하였고 이는 산모의 대사기능 및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알코올 대사 억제제인 4-MP 물질을 마우스에 처리를 한 결과 알코올섭취에 의해 나타난 이들 폐해들이 모두 억제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들 결과들은 우리나라 임신 코호트 2700명을 대상으로 임신 전 음주와 거대아 출생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4. 연구 의의 : 이들 결과들은 임신을 한 이후 음주뿐만 아니라 임신 전에 노출된 음주도 임신 능력, 태아 발달 및 산모 건강 이상에 영향을 및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한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민 보건 예방관리 정책을 마련하는데 매우 귀중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세계기독교여자절제회**

WWCTU의 창설자 프란시스 윌라드는 미국 노스웨스턴 첫 여자대학의 첫 여자 학장이었다. 그는 미국 사회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도덕성을 잃게 됨을 본 후 학장 자리를 떠나 절제운동에 전적으로 헌신하였다. 윌라드는 알코올로부터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술 유통을 금지하도록 입안을 시도하였으나 1880년대 여성들에게는 참정권이 없었다. 미국기독교여자절제회 주도로 WWCTU는 다 함께 여성참정권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뉴질랜드기독교여자절제회의 케이트 쉐퍼드 참정권부장은 뉴질랜드 국회에 3년 계속 여성참정권법을 발의하였고, 1893년 마침내 뉴질랜드 국회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WWCTU는 온 세계가 술과 담배, 그리고 마약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을 깨닫고 설립 이후 절제선교사를 해외에 보내어 각국에 절제회를 조직하였다. 절제운동의 핵심은 예방이다. 절제운동은 기독 여성들이 금주 금연, 순결, 평화, 절제, 봉사를 기치로 내걸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힘쓰고 입법활동에도 꾸준히 노력하여, 각국 법 제도를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국민건강을 돕도록 주류유통과 광고를 철저히 규제하는 것이다.

WWCTU는 1995년부터 태아알코올증후군에 대한 교육과 예방에 주목하였다. 술로 인해 인류사회에 미치는 가장 큰 해악 중 하나는 임신 중 여성이 마시는 술로 태아가 지능지수 70이하의 뇌성마비, 중추신경 장애, 안면 기형 등을 가진 태아알콜증후군 (Fetal Alcohol Syndrome)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태아알코올증후군은 여성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100% 예방할 수 있다. 가임 여성들에게 금주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가정 폭력, 각종 범죄의 주요 원인이 되는 알코올의 악영향을 널리 알려 갖가지 질병과 범죄 예방에 더욱 힘쓰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여성교육, 사회봉사를 통해 술이 가장 무서운 마약임을 알리고, 마약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중독 문제를 해결하도록 오늘도 WWCTU는 각 나라에 절제운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고 있다.

■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WWCTU가 파송한 영국인 크리스틴 틴링 선교사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이화학당, 배재학당 등에 절제운동을 소개하여 큰 호응을 얻었고, 1923년 한국 초기 선교사들과 초대 한국 교회 여성들이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전신인 조선기독교여자절제회를 창립하였다.

해방 후 절제회는 축첩제도 폐지를 입법화하였고 1969년 당시 절제회 이사였던 여귀옥 여사가 절제회관을 마련하였고 1972년에는 절제 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여 그 후 1980년 말까지 20여년을 매매춘 방지에 힘썼다. 당시 무작정 상경하던 젊은 여성들이 포주들의 꾀임에 넘어 가기 전에 그들을 구출하여 절제회관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미용, 편물, 양재 교육 등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성경 말씀을 가르쳐 신앙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왔다. 절제회는 1985년 후, 절제어린이집을 서울과 대구에 개원하여, 맞벌이 부부들을 후원하면서, 전국적으로 금주 금연 계몽운동에 힘쓰고 있다. 또한 세계 각처에 나가 있는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 해외에 절제회를 개척하고 선교지 신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